

문화

#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클래식 팬들은 설렌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이 활발하다.

많은 클래식 팬을 확보하고 있는 앙상블 디토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갖는다. 7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해마다 '디토 페스티벌'을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는 디토 앙상블은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수필가 피천득의 외손자인 스테판 피 재기브(바이올린), 마이클 니콜라스(첼로), 지용(피아노)으로 구성된 최고의 그룹. 이번 공연에는 김한(클라리넷), 다니엘 정(바이올린), 한경(오보에), 다순 장(더블 베이스)이 합류해 풍성한 음악을 선사한다.

'백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으로만 정했다. 들려줄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현악4중주 g단조 작품 11' 중 '안단테 칸타빌레',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 g단조 작품 57', 프로코피에프의 '오중주 g단조 작품 39',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노래' 모음곡이다.

티켓가격 8만8000원~4만40000원. 문의 1588-0766.

## ■ 7월 3일 '앙상블 디토'

광주 첫 공연... '백야' 주제로 풍성한 음악 선사

## ■ 7월 8일 '막심 브라비차'

현란한 피아노 속주 격정적 연주 완벽한 리듬 보여줘

다이내믹한 속주로 열광적인 무대를 연출하는 일렉트릭 피아니스트 막심 브라비차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7월8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비트가 강한 테크노 분위기의 전자음과 현란한 피아노 속주가 어우러진 크로스 오버 음악을 주 레퍼토리로 삼는 막심은 장르와 음악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 수려한 외모 등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막심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곡은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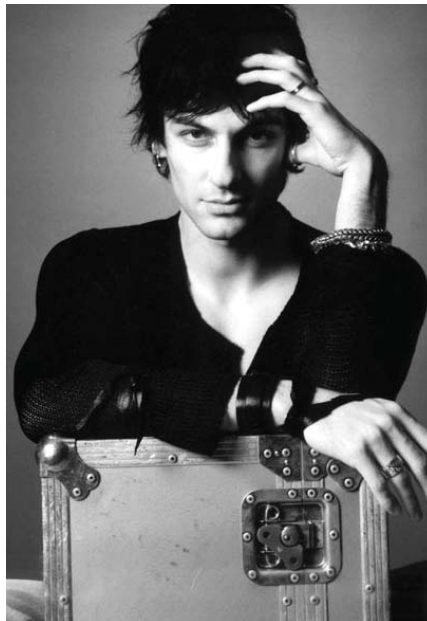
'앙상블 디토'

2003년 EMI에서 발매한 'The piano play'에 수록됐던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1975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9살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막심은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피아노 콩쿠르(1999년), 파리 콩트와즈 피아노 경연대회(2001년) 등에서 우승한 탄탄한 기본기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티켓 가격 10만원~6만원. 예매 인터넷 크.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막심 브라비차'

## 가야금 명창단 '현의 노래' 초청 공연 28일 목요일 열린국악한마당 무대

광주 서구가 주최하는 목요일 열린국악한마당이 28일 오후 7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가야금 명창단 '현의 노래'이다.

'꽃이 되고 싶어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주회에서는 단가 '호남가', '홍보가' 중 '홍보가가 마학', '심청가' 중 '아뢰어라~방아타령' 등을 들려준다. 또 김춘수의 시에 곡을 부친 창작곡으로 가야금 솔로, 저음 가야금병창, 고음가야금병창 3중창으로 구성된 '꽃', '그대가 내남인가', '여인' 등도 선사한다. 하선영씨가 이끄는 '현의 노래'는 새로운



시도와 끊임 없는 창작활동으로 가야금 병창의 음악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룹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 참가자 23명 확정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국내외 전시 기획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한 '제 4기 국제 큐레이터 코스' 참가자 23명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8월 13일부터 약 한달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간다.

38개국 98명 지원자 가운데 선정된 올해 참가자들은 제 7회 영국 리버풀 비엔날레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를 맡았던 홍리지 씨와 미국의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전시를 맡은 이수영 씨가 참여하는 등 영국·호주·중국·네덜란드·브라질·카메룬·이탈리아·프랑스 등 세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미술인들이 포함됐다.

큐레이터 코스는 '사회적 매체로서의 비엔날레'라는 주제로 8월 13일 개강해 9월 8일까지 27일간 진행되며 워크숍·국제미술포럼과 8월 13일부터 약 한달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간다.

앤스 호프만 2011 이스탄불비엔날레 공동감독, 캐롤 잉화 루(2012 광주비엔날레 전시 전문가 초청 강의·현장 답사를 비롯, 광주비엔날레 공간 연출 및 작품 설치 등 전시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시립미술관 상록문화교좌 내일 윤범모 교수 초청

광주시립미술관은 26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윤범모 <사진> 가천대 교수를 초청, 상록 문화교좌를 연다.

윤 교수는 이날 '한국 미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의 특성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근현대미술사 회장으로, 국내 근현대미술을 비롯, 조선시대 회화와 북한 조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 비평을 해오고 있다.

윤씨는 이번 강의에서 자연 환경이 한국 미의식에 끼친 영향을 비롯, 불교 문화와 한국 미술문화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황순철 작 '독수고매'



이준립 작 '정원-기다림1'

## '그룹 새벽' 차별화된 예술을 엿보다

여수박람회 기념전, 28일까지 국동캠퍼스 아트센터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 그룹 중 존재감이 가장 뚜렷한 '그룹 새벽'(회장 이준립)이 여수에서 그룹전을 연다. 지난 1991년 6명의 회원들로 창립전을 가진 뒤 벌써 32번째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개최도시의 창조적 문화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로 21년이 된 새벽은 28일까지 전남대 국동캠퍼스 아트센터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 예술적으로 의기투합한 30명의 회원 중 24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사회적과 대중성을 갖는 힘있는 전시로 다른 그룹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온 그룹의 예술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준립 회장과 황순철 작가를 비롯, 고근호·정용규·한희원·임종두·김숙빈·나명규 씨 등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중견 작가들의 작품 48점이 선을 보인다. 모두 50호~200호 이내의 대작들인데다, 평면 작품을 비롯해 설치·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어

우러져 관람객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이기도 하다.

황순철씨는 최근까지 작품 소재로 즐겨 썼던 '매꽃' 대신, 매화를 소재로 한 '독수고매'라는 신작을 내놓았고 이준립씨는 자신이 즐겨 그리는 꽃과 연인을 소재로 한 '정원-그리움 1'을 선보였다.

한희원씨는 '여수로 가는 마차'를 통해 지역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고 조계걸씨는 잘게 부수 캔버스에 덧칠하는 기법을 써온 정용규씨는 '가족'을 통해 화사한 곡선미를 선사한다. 유쾌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고근호씨의 '계바라의 휴식'이라는 작품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외 김기범·김상선·김성식·김영태·박은수·박일구·배현철·서병욱·유상규·이기원·이창훈·이형모·임종두·정철홍·정해영·채종기 등이 참여했다.

문의 010-5654-468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화 속 친구들 만날까 '행복한 상상'

광주시립미술관, 10월14일까지 '어린이그림책'전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나라를 펼쳐 해 주는데 그림책만한 게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자녀손을 잡고 가 볼만한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0월 14일까지 보림출판사와 함께 어린이그림책전 '행복한 상상'전을 연다. 그림책과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전시에는 류재수(하양 개망), 유주연(어느날), 이혜리(달려), 조은영(달려 토트), 한성욱(나무는 알고 있지) 등 국내 대표적 그림책 작가 5명의 작품 60여점이 선보인다.

조씨 작품의 경우 경마장에서 달려나가는 말의 순위에만 신경 쓰는 어른들과 달리 말 본래의 모습을 사랑하는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한씨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책 속 주인공이나 주제와 관련된 색칠하기, 도장찍기, 사진찍기 등의 체험 프



'하양개망 내지 고래'

그림이 마련돼 있고, 출판사가 기증한 250권의 책으로 꾸며진 동화책방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책을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아이들에게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기구인지 느끼게 해줄만한 전시로, 재미와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둘러보는 게 좋다. 문의 062-613-7144.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